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4년 11월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간단한 차로 교우를 대접하면 큰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 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54장(주님은 나의 목자), 436장(주 날개 밑)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3. 성서 읽기: 요한 6장 60-69절 (제자들의 선택)
   요한 8장 1-11절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하라.(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새 교우 인사, 공지사항, 다음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27장(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68장(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MEMO

[아시겠지만]

죽은 이를 위해서는 미사 예물만 바쳐도 되겠죠?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영성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령 미사는 옛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에서 죽은 이의 장례일이나 기념일에 '밥상' 또는 '위안상'을 차려 놓고 그를 위해서 빈 자리를 마련하고 기리던 풍습을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으로 대치한데서 연유했습니다. 그러다 중세기에 미사의 제사성이 강조되면서 미사의 제사화와 함께 당시의 신학 사상, 특히 구원론과 시대적 여건 등의 요인이 맞물려, 교회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죽음과 그 이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옥 교리의 발달이 죽은 이들을 위한 신심 행사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대신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쳐 하느님께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정성을 보아 연옥에서 단련 받는 이의 고통과 시련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라는 교리에 따라 연도나 위령 미사를 바치는 관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의 교우들 사이에는 죽은 이를 위해 미사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위령 미사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미사가 지닌 참된 제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위령 미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제사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출생, 공생활, 수난과 죽음, 부활을 포함하는 전 생애를 하느님께 바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바친다는 의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의 전 생활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분을 위해 생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미사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령 미사를 드릴 때 미사의 본 의미를 생각하여 합당한 지향과 마음가짐으로 먼저 준비한 다음, 그 미사 안에서 죽은 이를 위한 은혜를 청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서묵상 1〉

주제: 제자들의 선택(요한 6,60-69)

유다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 금기로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혐오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이다. 예수를 EK라 다니던 많은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되면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즉, 당신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몸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된 몸이라는 것이다. 성체성사에서 사람들이 함께 나눌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느님의 영역으로 올라간 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그 분의 살과 피인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63절) 다른 인간들과 똑같았던 지상에서의 제한되고 현세적인 살과 피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현존을 나누어 줄 수는 없기에 성령으로 변화된 당신을 먹고 마시는 이들과 완전한 인성을 나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심으로써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동기가 믿음이 있음을 밝히시며 심지어 당신을 배반할 자에 대해 암시하신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예수께서 남은 열 두 제자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을 때 베드로는 열 두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한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68절)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힘이 진정 예수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나눔: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67절-

-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먼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상의하십니까?

<성서묵상 2>

주제: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요한 8, 1-11)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의도는 무척 간교하다. 모세법(레위 20,10 : 신명 22,22)에 따라 이 여인을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베풀어 온 자비와 용서를 스스로 거부하는 셈이 된다. 반면에 그들이 요구하는 판결을 거절한다면 율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판단의 방향을 근본적인 자기 성찰에로 돌리신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에서 신비로움을 느낀다. 예수께서 침묵과 말씀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죽음의 문턱에 선 여인을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은 마치 말씀과 행위로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모습과 동일하다. 심판이 하느심이신 예수님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단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힘으로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다.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이웃의 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여주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눔: "너희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를 돌로 쳐라." -7절-

- 우리 사회의 죄인들인 살인자,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소금과 호수

나이 들고 현명한 큰스님이 젊은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제자는 모든 일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늘
투덜거렸다. 어느날 아침, 큰스님은 제자를 불러 소금을 한 줌
가져오라 일렀다. 그리고는 소금을 물컵에 털어 넣게 하더니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그 물을 마셨다.
큰스님이 물었다. "맛이 어떠냐?"
"짭니다...." 제자가 조금 성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큰스님은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근처 호숫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소금을 쥔 제자의 손을 호숫물에
넣고 휘휘 저었다. 잠시 뒤 큰스님은 호수의 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아니요..."
그러자 큰스님이 말했다.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네.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자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호수가 되게나..."

- 인터넷 사이트 행복닷컴(www.happy.co.kr)